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길림신문
吉林省委朝鮮文机关报

吉林朝鮮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5 년 4 월
19
토요일
음력 3 월 22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鮮文报 제 6024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습근평 , 프놈뻰에 도착하여 캄보쟈 국빈방문 시작

현지시간으로 17 일 오전 , 국가주석 습근평은 전용기편으로 프놈뻰에 도착하여 캄보쟈 국왕 시하모니의 초청으로 캄보쟈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습근평이 전용기편으로 프놈뻰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하모니 국왕이 차크라퐁 친왕 , 알렌공주 등 왕족 성원들과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 및 국회 제 1 부주석 , 부수상들을 인솔하여 공항에서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의장병들이 레드카펫 량쪽에 정렬해있었다. 캄보쟈 왕실 제나공주가 습근평에게 말리화 팔찌 (手环) 를 드리고 녀성 청년들이 레드카펫에 꽃잎을 뿌렸다.

시하모니는 공항에서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

량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캄보쟈 량국 국가를 연주했다. 습근평은 시하모니의 안내하에 의장대를 사열했다. 량국 정상은 각각 상대방 수행인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했다.

수백명의 당지 민중들이 량국 국기를 흔들면서 '캄보쟈—중국 친선 , 단결 , 협력 만세 !' 등 붉은색 현수막을 들고 습근평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습근평은 서면 연설을 발표하여 캄보쟈의 전통 새해에 즈음해 캄보쟈 정부와 인민에게 아름다운 새해 축복을 전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과 캄보쟈 관계는 량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창건하고 알심들여 육성했으며 국제풍운의 변화무쌍한 시련을 겪었지만 시종일관 반석처럼 견고했다. 량국은 선참으로 량자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전개했으며 각자 국가의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사업에서 서로 지지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단결협력하여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본보기를 세우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 나는 캄보쟈 지도자와 함께 친선을 이어가고 발전을 도모하며 중국과 캄보쟈의 '다이아몬드 6 자' 협력 구도를 끊임없이 충실히 하고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여 량국 인민에 더욱 많은 복지를 마련하고 지역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은 긍정에너지를 주입하길 기대한다.

채기 , 왕의 , 왕소홍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다.

캄보쟈 주재 중국대사 왕문빈이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습근평이 차를 타고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도로 량켠에서 중국과 캄보쟈 량국의 국기가 바람에 나붓겼다. 2 만여명의 당지 민중 및 화교 , 중국인 , 중국 기업과 류학생 대표들이 거리 량켠에 모여 량국 지도자 사진을 들고 중국과 캄보쟈 국기를 흔들면서 습근평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 신화사

관광객들 , 연변에서 봄날의 정취와 변강의 매력에 흠뻑

관광시장에 강력한 활력 불어넣으며 연변 관광 성수기의 좋은 시작 알려

청명절 련휴 기간 동안 , 연변에서는 봄을 매개로 관광에 문화를 접목시켜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봄날의 정취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줄지어 연변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연변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취했다.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다. 지난 청명절 련휴 기간 연변에서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통합해 특색있는 관광 프로젝트와 풍부한 문화 행사들을 선보였다.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상품 코스를 최적화했으며 관광지들마다 할인 정책이나 단체 할인 티켓 등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체험감을 높였다.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 , 관광객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민족문화의 정취가 물씬 넘치는 민속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민속 정취에 흠뻑 빠져든다. 통계에 따르면 청명절 련휴 기간 민속원을 찾은 관광객은 4 만 9,000 명이 넘었는데 이는 연변의 봄철 관광시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관계자는 청명절 련휴 기간 관광객수가 꾸준히 증가해 연변 관광 성수기의 좋은 시작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청명절 이후 , 민속원은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실경 뮤지컬 공연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5.1'절 련휴전에 민속원내의 써비스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적 체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방 제 1 촌'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가진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에 들어서면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로 조선족 기와집들이 어우러져있고 조선족 생활용 도자기와 항아리들로 장식된 수경벽을 따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풍경이 펼쳐진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낸다.

▲ 청명절 련휴 기간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룬 연길공룡왕국

"이곳은 환경이 정말 좋고 조선족 민속 풍경들로 가득해요. 이전부터 틱톡에서 방천의 민속촌 영상을 자주 봤는데 이번 청명절 련휴를 틈타 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놀러 왔어요. 이제 '한눈에 세 나라를 바라보는'(一眼望三国) 전망대 경치도 보러 갈거예요. 독특한 변경 풍경을 느껴보고 싶어요." 심양에서 온 관광객 류지국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력사를 추억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 련휴를 유익하게 보내는 선택으로 되였다. 돈화시력사박물관에 들어서면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천년의 시간을 거쳐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발해국의 흥망성쇠부터 항일전쟁의 전화를 겪은 시대 ,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후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 여러 전시물과 풍경들은 이 땅에서 여러 민족이 힘을 합쳐 노력 분발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관람을 통해 돈화지역의 항일력사와 여러 민족의 문화풍속습관을 알게 되였고 민족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또한 항일전쟁에서 여러 민족이 단결해 함께 적과 맞섰던 위대한 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경에서 온 관광객 리씨의 감개무량한 소감이다.

청명절 련휴 기간 연길차무단 관할의 연길서역은 핫플레이스 도시 (网红打卡城市) 의 독특한 장점을 활용해 '고속철도 + 관광' 형식으로 역무원들을 연변 관광 추천관으로 변신시켰다. 출구 , 대합실 ,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원하는 승객들에게 '연변 관광 즐기기', '장백산 관광' 등의 관광 안내 자료들을 나누어주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서는 대기 방식을 최적화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였으며 휠체어 승객이나 동반자가 없는 아동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 과정 세심한 써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특별 승객 휴계실을 마련해 더욱 편안한 대기 환경을 조성했다.

4 월 3 일부터 7 일까지 연길차무단은 총 20 만명의 승객들을 운송했는데 일일 최다 승객수는 4 월 6 일로 4 만 9,000 명에 달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총 95 편의 운항을 보장 , 려객 흐름량은 연인원 1 만 2,207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와 10.2% 증가했다.

/ 길림일보

최신 ! 2025 년 중국 대학 순위 발표

4 월 15 일 ,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관인 ARWU(软科) 는 '2025 년 중국 대학 순위'를 공식 발표했다.

청화대학 , 북경대학 , 절강대학은 주요 순위 (즉 종합대학 순위) 에서 꾸준히 상위 세자리를 차지했다. 북경협화의학원이 의약 계렬 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하고 북경중의약대학이 중의약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상해재경대학이 재경 계렬 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다. 북경외국어대학이 언어 계렬 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중국정법대학이 정법 계렬 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중앙민족대학이 민족 계렬 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상해체육대학이 체육 계렬 대학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향항중문대학 (심수) 이 중국 합작운영대학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다.

'2025 중국 대학 순위' 대상은 중국의 1,000 여개 본과 차원의 대학으로 학교 성격과 류형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순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을 종합대학 , 8 개 부류 단과대학 , 4 개 부류 비공립대학으로 나누고 차별화 지표 체계를 채택하여 각각 순위를 매겼다.

2025 년 중국 대학 순위 (주요 순위) 에 오른 대학은 총 589 개이다. 청화대학 , 북경대학 , 절강대학은 11 년 련속 전국 3 위 안에 들며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상해교통대학과 복단대학은 전국 5 위 안에 안착했다. 전국 상위 10 개 대학은 남경대학 (6 위), 중국과학기술대학 (7 위), 무한대학 (8 위), 화중과학기술대학 (9 위), 서안교통대학 (10 위) 순이다.

길림성에서는 24 개 대학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앞 3 위에 든 대학들로는 길림대학 (전국 26 위), 동북사범대학 (전국 45 위), 장춘리공대학 (전국 138 위) 이며 연변대학은 길림성 5 위 , 전국 168 위를 차지했다.

/ 김파기자

전국 최초 ! 척수전기자극 삽입술로 '식물인간' 소생

장춘중의약대학부속병원 뇌외과 주임 장욱동 의료진이 전국 중의계통 최초로 척수전기자극 삽입술을 통해 혼수상태 환자의 의식 회복에 성공했다. 이 돌파성 수술은 이 병원이 신경 중증 치료에서 리정표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징하며 장기적 혼수상태 환자와 가족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환자 림모는 올해 1 월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로 뇌수종 및 우측 기저절 · 뇌간 출혈 진단을 받았다. 적극적인 치료로 병세는 안정되였으나 지속적인 혼수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였다. 이에 가족은 장춘중의약대학부속병원 뇌외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종합 평가를 거쳐 척수전기자극 삽입술을 결정했다. 정밀한 위치 측정하에 환자의 척수 C2-7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술후 뇌병과 · 재활과 등 다학과 회진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중의 특색 기술인 중약 · 침구 · 물리치료 등을 결합한 통합 재활 프로그람을 적용했다.

척수전기자극 삽입술은 척수 경막외부에 전극을 설치해 펄스 전류로 신경을 자극하는 첨단기술이다. 이는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의 대사를 개선하면서 뇌간망상상행계통 (脑干网状上行系统) 을 활성화시켜 의식 회복을 촉진한다.

이번 기술의 성공적인 응용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신경 중증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것으로 된다.

/ 길림일보

양로금 발급 관련 중요 통지 !

〈사회보험처리조례〉 등 문건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기금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보험대우 부정 수령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4 월 15 일 , 각 성 직속 업종단위 대우 향수 인원을 대상해 대우수령 자격인증에 관한 안내문을 발부하고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

인증 인원 범위에는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 , 매달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 공상보험대우를 장기적으로 수령하는 인원이 포함된다.

대우수령 자격인증 주기는 12 개월이며 주기내에 최소 1 회 인증을 완수해야 한다. 기한내에 인증을 완수하지 않은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 년 5 월부터 양로금 발급이 중단된다.

인증 플래트홈 :

1. 길림성사회보험 (吉林省社会保险) 위챗 / 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람.
2. 길림장상사회보험 (掌上社保 APP, 안드로이드 전용).
3. 전자사회보험카드.
4. 중국령사 (领事) 위챗 미니프로그람 혹은 APP(해외 거주자 전용).
5. 오프라인 사회보험봉사대청 방문. 특수계층 (침상에 누워있는 장기환자 , 고령 로인 등의 특수계층 및 기타 사유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수령자) 은 원래 단위에 련계해 보조 등록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 완료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급여를 재개하며 중단 기간 분도 다음달 일괄 지급된다. 기본양로금 수령인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인증을 완료하여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

/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현대화한 벼 육모로 풍작 약속

올해 춘경생산에서 전고르로스현의 벼재배호들은 현대화한 기계설비를 적극 리용하여 벼 육모 효률과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올해 벼농사 풍작을 약속하고 있다.

/ 길림일보